

이젠 월드컵 본선 1차 목표는 16강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8차전 대한민국과 시리아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10회 연속 및 통산 11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8차전 대한민국과 시리아의 경기. 벤투 감독이 경기를 지켜 보고 있다. /연합뉴스

11월 21일~12월 18일 카타르 5개 도시, 8개 경기장서 개최 4월 1일 조 추첨 '3번 포트' 유력... 12년 만의 원정 16강 도전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조기에 확정지은 벤투호는 일찌감치 2022 카타르 월드컵 무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아랍권에서는 처음 열리는 월드컵인 카타르 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카타르 수도 도하를 비롯한 5개 도시, 8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월드컵이 11월에 개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드컵은 통상적으로 6월에 열리지만, 이 시기 카타르의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어 11월로 개최 시기가 변경됐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일(한국시간) 시리아전에서 2-0 승리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6승 2무(승점 20), 무패행진을 이어가며 남은 2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 A조 2위를 확보해 본선 진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대표팀은 시리아전 후 해산한 뒤 다음달 최종예선 9-10차전을 치르기 위해 다시 모인다.

3월 24일 조 1위를 다툰 이란과의 9차전 홈 경기에 이어 같은 달 29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최종전 원정경기로 최종예선을 일정을 마무리한다.

2차 예선도 무패(5승 1무)로 통과했던 우리나라는 이란, UAE전 결과에 따라 1990년 이탈리아 대회(9승 2무),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7승 7무)에 이어 세 번째로 '월드컵 아시아 예선 무패'도 기록할 수 있다.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만큼 벤투 감독은 이란, UAE전에서 새로운 얼굴을 테스트할 수도 있고 다양한 전술 실험도 할 수 있게 됐다.

월드컵 기간 태극전사들이 사용할 카타르 내 베이스캠프 결정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4월 1일에는 도하에서 월드컵 본선 주 추첨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본선 성적을 가능해볼 수 있는 중요한 행사다.

다만, 아시아-남미, 북중미-오세아니아로 대진이 결정된 대륙 간 플레이오프(PO)가 오는 6월 13~14일 중 중립지역에서 단판 승부로 열릴 예정이라 조 추첨은 본선 참가 32개국 중 30개국만 확정된 가운데 치러진다.

현재 개최국 카타르를 포함한 15개국이 카타르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유럽 예선에서 각 조 1위를 차지한 10개국(세르비아,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잉글랜드, 독일)과 남미 예선 1, 2위를 탈리고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카타르행을 확정 지었다.

아시아에서는 이란과 우리나라가 카타르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본선 조별리그 상대국이 결정되면 월드컵 준비에는 더욱 속도가 붙게 된다.

아시아 무대와는 다른 수준의 강호들과 대결을 준비하기 위해 상대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준비하고 평가전도 치러야 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연간 일정을 보면 5월 30일~6월 14일 최대 4경기, 9월 19~27일 최대 2경기까지 A매치를 치를 수 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1차 목표는 조별리그를 통과해 16강에 오르는 것이다.

2018년 러시아 대회까지 한국은 10번의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두 번만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연도	대회명	성적
1954	스위스 월드컵 (김용석 감독)	2패 (조별리그 탈락)
1986	멕시코 월드컵 (김정남)	1무2패 (조별리그 탈락)
1990	이탈리아 월드컵 (이희택)	3패 (조별리그 탈락)
1994	미국 월드컵 (김호)	2무1패 (조별리그 탈락)
1998	프랑스 월드컵 (차범근)	1무2패 (조별리그 탈락)
2002	한 일 월드컵 (김종수)	4승1무2패 (4위)
2006	독일 월드컵 (박지성)	1승1무1패 (조별리그 탈락)
2010	남아공 월드컵 (허정무)	1승1무2패 (16강 진출)
2014	브라질 월드컵 (홍명보)	1무2패 (조별리그 탈락)
2018	러시아 월드컵 (신재홍)	1승2패 (조별리그 탈락)
2022	카타르 월드컵 (파울루 벤투)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역대 총 11회)

안방에서 치른 2002 한일 월드컵 때 사상 처음 16강에 올라 역대 최고 성적인 4강 신화까지 썼다. 이후 2010년 남아공 대회 때 두 번째이자 원정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16강에 오른 바 있다.

두 대회를 빼고는 모두 조별리그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본선 첫 승리를 거둔 것도 한일 월드컵 조별리그 폴란드와 1차전(2-0 승)에서였을 정도로 한국 축구에 월드컵 본선은 호락호락한 무대는 아니었다. 그 어느 해보다 손쉽게 아시아 예선을 통과한 벤투호는 이제 카타르에서 12년 만의 원정 월드컵 16강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박항서의 베트남 첫 승

월드컵 최종예선 중국 3-1 꺾어

베트남 축구의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최종예선 첫 승리를 따낸 '박항서 매직'에 베트남 총리까지 나서 대표팀을 격려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지난 1일 베트남 하노이의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8차전에서 중국을 3-1로 제압했다.

박 감독의 지도 아래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최종예선에 진출한 베트남은 이날 전까지 7연패를 당해 본선 진출이 불발된 상황이었지만, 중국을 제물삼아 값진 첫 승리를 만들어냈다.

베트남이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거둔 첫 승리이며, 중국과 A매치에서 이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국가가 최종예선에서 승리한 것도 베트남이 처음이라고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 등은 전했다.

태국이 2002년과 2018년 최종예선에 올랐으나 각각 4무 4패, 2무 8패로 승리가 없었다.

설날 전제된 남보에 팜 민 쯤 베트남 총리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쯤 총리는 베트남 선수들이 상대의 골망을 흔들 때마다 환호했고, 경기 뒤에는 그라운드에서 선수단을 격려했다.

베트남 푸오이제는 "경기 직후 쯤 총리가 그라운드로 내려가 코치진과 선수들에게 축하를 건넸고, 선수단 전원에게 '세뱃돈'(Lucky money)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오창록, 2년 연속 한라장사

설날장사씨름대회

오창록(28·영암군민속씨름단)이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2년 연속 한라장사(105kg 이하)에 올랐다.

오창록은 최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2 설날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 결정전(5전 3승제)에서 신인 김무호(19·울주군청)를 3-0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오창록은 지난해에 이어 설날 대회 2연패를 기록, 자신의 통산 11번째 한라장사 타이틀을 거머쥐며 '최강자'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8강에서 임규완(문경새재씨름단)을 2-1로 꺾은 그는 4강에서 같은 팀 동료인 차민수(21)를 2-1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오창록은 결승 첫판 주목적인 들배지기로 기선을 제압한 뒤 두 번째 판 잡채기를 성공시켜 단숨에 2-0을 만들었다.

이어 두 번째 판에서 발목이 꺾인 김무호가 부상 기권을 선언하면서 오창록의 우승이 확정됐다.

한편, 같은 팀 장성우(25)는 지난 1일 백두장사결정전(5전 3승제)에서 최성민(20·태안군청)에게 1-3으로 패해 2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벤투호, 2·3차 예선 11승 3무 무패행진... 손흥민·김신욱 6골 '최다'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지난 1일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본선예선을 확정하며 10회 연속 본선 진출의 꿈을 이뤘다.

카타르행을 조기 확정하기는 했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벤투호는 2019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H조 1차전을 시작으로 이날 시리아 전까지 2, 3차 예선 14경기를 펼쳤다.

북한의 2차 예선 중도 불참으로 무효가 된 평양 원정경기(0-0 무)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치른 건 15경기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예선 일정이 미뤄지는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본선 진출을 확정하기까지는 약 2년 5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이 기간 한국은 2차 예선 5승 1무(승점 16)로

조 1위에 올랐고, 3차 예선에서도 6승 2무로 무패를 기록했다.

태극전사들의 투혼은 벤투호의 순항으로 이어졌다.

2, 3차 예선에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진 선수는 '캡틴' 손흥민(토트넘)과 김신욱(라이언 시티)으로 나란히 6골씩을 넣었다.

A매치 96경기에서 30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2차 예선 6경기(북한전 포함)에서 3골, 최종예선 5경기에서 3골을 터뜨렸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란과의 최종예선 4차전 원정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어 1-1 무승부에 기여했고, 이 골은 국내 축구 팬이 뽑은 대한축구협회 2021년 '올해의 골'로 뽑혔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카타르 도하의 타니 빈 자

심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 6차전 원정 경기에서 페널티킥 골로 자신의 30호 골을 기록, 한국의 3-0 완승에 앞장섰다.

2011년 이 경기장에서 자신의 A매치 데뷔골을 터뜨렸던 손흥민은 10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득점포를 쏘아 올렸다.

김신욱은 최종예선에서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2차 예선 5경기에서 6골을 몰아쳤다.

2019년 10월 스리랑카(8-0 한국 승)전에서는 팀 득점의 절반인 4골을 혼자 책임지기도 했다.

한국 대표팀에선 2, 3차 예선을 거치며 총 16명의 선수가 32골(상대 자책골 제외)을 작성했다.

손흥민, 김신욱 다음으로 권창훈이 4골, 황희찬

(울버햄프턴)이 3골을 넣었고, 벤투호의 원톱 스트라이커 황의조(보르도)도 2골을 뽑아냈다.

나상호(서울)와 이동경(울산), 정상빈(수원), 정우영(프라이부르크)은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A매치 데뷔골을 터뜨리는 기쁨도 맛봤다.

수비진과 수문장들의 활약도 빠뜨릴 수 없다. 이용과 김진수(이상 전북), 김민재(페네르바체), 홍철(대구), 김영권(울산) 등이 뒤를 받친 한국은 2차 예선에서 22득점을 하는 동안 상대에 단 1골을 내줬고, 최종예선에서도 11득점을 하며 2실점에 그쳤다.

골키퍼 김승규(가시와 레이솔)가 13경기(2차 예선 5경기·최종예선 8경기) 중 10경기에서 클린 시트를 기록했고, 조원우(울산)도 2차 예선 두 경기 무실점으로 막았다. /연합뉴스